서 산 태 안
당 진 보 령
서 천 예 산

동 정

6월 민방위날 훈련 참관

유상곤 서산시장은 22일 오후 2시 대산읍 독곶리 현대오일뱅크(주)에서 열리는 제361차 6월 민방위 날 훈련을 참관한다.

대천해수욕장 청결 행사

신준희 보령시장은 22일 오전 10시 30분 대천해수욕장에서 개최되는 개장 대비 환경대청결 행사에 참석 한다.

만리포해수욕장 개장식

진태구 태안군수는 22일 오전 11시 만리포해수욕장 노래비 앞에서 열리는 '제52회 만리포해수욕장 개장식' 에 참석한다.

"천수만을 세계자연유산으로"

서산시, 2009년까지 유네스코 등록 추진
문화관광자원 활용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세계적인 철새 도래지인 서산 천수만 일원을 유네스코 지정 '세계자연유산' 으로 등록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1일 서산시에 따르면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비롯 매년 수천만마리의 철새가 찾아드는 천수만의 생태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존, 관리하고 문화 관광자원 등으로도 활용하기 위해 이 일대를 '세계자연유산' 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2009년까지 6억8000여만원을 들여 세계유산 등록 타당성 검토를 위한 용역을 펼치기로 했으며 세계유산 등록에 앞서 우선 천연기념물로 등재키로 했다. 또 천연기념물 등재 신청과 함께 주민공청회, 세계유산등록 추진위원회 구성, 학술조사 등을 거쳐 유네스코에 잠정목록 등재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이 일대 주민들에 대한 지원대책과 주민 참여 기반 등도 마련, 세계유산 지정에 따른 재산권 제약을 우려하는 지역 주민들의 반대도 해소해 가기로 했다. 천수만이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되면 천수만에 대한 체계적인 보존 기반을 쌓을 수 있는 것은 물론 국가적인 자부심을 높일 수 있으며 국내외 관광객 증가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천수만은 해마다 가창오리를 비롯한 국제적 멸종위기종과 각종 천연기념물(흑두루미, 큰고니 등) 등 300여종의 철새가 하루 최대 40여만마리씩 찾고 있는 세계 최대의 철새 도래지이다. 서산시 관계자는 "천수만 철새도래지를 세계자연유산으로 등록함으로써 자연유산 보전을 위한 국가적인 책임감도 가질 수 있다"며 "용역 등을 통해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은 무기적 · 생물학적 생성물로 이뤄진 자연의 형태, 지질학적 · 지문(地文)학적 생성물,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의 서식지 등을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에 대한 지정 가능성이 높은 상태이다.

〈서산=정관희 기자〉

태안군, 2009년 꽃박람회 중간보고회

"축제기반시설 점검등 최선"

[태안]2002년 안면도 국제꽃박람회에 이어 오는 2009년 재개최되는 꽃박람회 기본계획 연구용역 중간보고회가 20일 태안군청 상황실에서 열렸다.

이날 보고회에는 진태구 태안군수를 비롯 충남개발공사 홍인의 사장, 충청남도 및 군 관계자 40여명이 참가 연구용역 수행업체인 주식회사 프록스로부터 용역 진행상황을 청취했다.

이어 참석자들은 성공적 축제를 위해 주차장, 상하수도, 쓰레기 문제 등 축제기반시설과 준비 전반에 대한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 자리에서 진태구 군수는 "2009 안면도국제꽃박람회는 지난 2002년과 차별화된 꽃박람회가 될 수 있도록 새로운 아이템을 개발하고 군과 관련기관 모두의 역량을 결집 성공적 축제 준비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홍인의 사장은 "안면도에서만 느낄 수 있는 박람회의 감동을 선사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오늘 토론 결과를 바탕으로 기본계획을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안면도국제꽃박람회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지난 2002년의 성공이 재현될 수 있도록 교통망 구축, 관광안내 등 군 차원의 세부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정명영 기자〉

서울시 서천연수원 지역민 집단행동 움직임

"고용창출·현안해결 약속지켜라"

[서천](속보)=서울시 서천연수원 개원을 앞두고 인근주민들이 고용문제및 숙원사업 해결을 주장하며 대책위를 구성, 서울시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집단행동 조짐을 보이고 있다.

〈본보 19일자 12면보도〉

서면 월호리 주민들에 따르면 당초 서울시가 연수원을 직영 운영하고 마을주민들을 상당부분 고용키로 약속했으나 이제와서 위탁 관리사를 선정, 월 80만-90만원 정도의 저임금 고용을 추진하는 것은 납득키 어려운 처사라고 밝혔다.

이에 주민들은 대책위를 구성하고 진정서를 통해 서울시가 당초에 약속한 마을회관 건립 및 체험장 세면시설 등(총 2억 5000만원 상당) 마을 숙원사업을 조속히 이행해 줄것을 요구했다.

특히 주민들은 청소분문 등 일정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위탁사와의 계약을 철회하고 적정한 금액을 산정, 마을의 실질적 소득사업이 될수 있도록 마을에 위탁처리해 줄것을 주장했다.

또한 주민들은 연수원에서 발생하는 각종 오폐수(1일 400여t)로 인해 인근 200-300m 에 위치한 바지락 및 전복, 해삼 등 공동어장(총 53㏊)의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서울시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어 주민들은 연수원 신축과정에서 해안사구에 통해로가 설치되고 일정부분 훼손된 것 같다며 의혹을 제기, 서천군이 즉시 실태파악에 나서 적법조치를 해줄 것을 강조했다.

오는 26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참석하는 연수원 개원식에 맞춰 70여가구 200여명의 주민들은 서울시가 총체적으로 약속이행을 하지 않고 있다며 연수원 입구에서 집단행동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대책위 소속의 한 주민은 "연수원이 들어서면 서면 지역은 물론 서천군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처럼 서천군이 앞장서 홍보해 왔다"며 "허드레 일자리 몇개를 얻은 것이 지역경제 활성화냐"며 서천군을 원망했다.

이어 "연수원이 가동되면 일반인이 활용하는 변칙영업의 개연성도 있다"며 "이렇게 되면 서면 지역 민박시설을 비롯 주변 식당들까지 오히려 연수원 유치로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병용 기자〉

농협 서산시지부는 21일 관내 외국여성 농업인 가족을 대상으로 무료종합건강검진을 실시했다.

결혼이민여성 '건강 도우미'

농협 서산지부, 무료종합검진

농협 서산시지부(지부장 한경상)는 21일 시지부 회의실에서 관내 남성과 결혼해 살고 있는 외국여성 농업인 가족을 대상으로 무료 종합건강검진을 실시했다, 이날 검진에는 이민여성 부부 100여명이 나와 자궁암과 유방암 등 여성관련 암 · 갑상선검사, 위장촬영, X-ray, 복부 초음파 등 23개 항목에 걸쳐 검진을 받았다. 농협은 검진이 끝난 뒤 참가자에게 가정비상약 구급함과 가정용품세트를 기념품으로 제공했으며 우리 쌀로 만든 빵 시식회도 가졌다.

한경상 지부장은 "농촌지역에 국제결혼가정이 날로 늘어나면서 이민여성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며 "한국생활에 불편을 덜어주기 위한 각종 지원사업을 펼쳐나갈 계획" 이라고 밝혔다.

〈서산=정관희 기자〉

서산테크노밸리 조성박차
한화도시개발

한화도시개발이 서산테크노밸리 조성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뛰어들었다.

한화도시개발은 20일 성연면사무소에서 지역주민 및 관계자등 1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서산테크노밸리 조성에 따른 주민설명회를 가졌다. 한화도시개발측은 이날 제시된 주민 의견을 종합해 이르면 내달 충남도에 산업단지 지정 신청서를 낼 계획이다.

이날 한화도시개발은 "성연면 일원 202만 3780㎡에 오는 2010년까지 모두 2조 216억원을 들여 인근 자동차 관련 산업과 연계한 산업, 주거, 공공시설 등을 갖춘 서산테크노밸리를 조성한다"고 밝혔다. 8월중에 산업단지 지정 승인을 받으면 내년 1월 지역주민 손실보상협의를 거쳐 곧바로 착공 및 분양 절차에 들어갈 방침이다.

서산테크노밸리가 조성되면 입주업체 300여개와 연간 매출액 3조원, 연간부가가치 1조 2000억원, 상시 고용인원 1만 8000여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한화도시개발 관계자는 "서산시와 긴밀한 협조로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을 산업단지 조성으로 지역발전을 이끌겠다"고 밝혔다.

〈서산=정관희 기자〉

서산 구도심 활성화 '청신호'

市, 동문동등 노후주택지 재개발 탄력

[서산]구도심 노후 주택지에 대한 재개발 승인이 속속 이루어지면서 서산시가 추진하는 주택 재개발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탄력이 붙고 있다.

21일 서산시에 따르면 충남도는 서산시 동문동 765-1번지 일원(구법원 뒤편) 5만4178㎡(1만6389평)를 주택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난 20일 지정 고시했다.

이에 따라 전체 면적 가운데 86%인 4만6468㎡(1만4057평)는 공동주택 용지로 재개발되고 나머지 7710㎡(2332평)는 도로와 공원, 단독 및 근린생활용지로 각각 정비된다. 특히 공동주택 용지는 택지개발정비사업 조합이 사업을 맡아 오는 2010년까지 13개동 823세대(임대주택 70세대 포함)규모의 아파트 단지로 재개발 된다. 시는 이번 정비구역 지정이 최종 확정됨에 따라 조만간 주민 설명회를 갖고 조합 설립과 사업시행 인가등을 위한 행정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오는 2010년까지 총 사업비 193억 7200만원을 투입하게 될 노후 주택 밀집지역 5곳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사업 역시 순풍을 타고 있다. 시는 최근 읍내 · 석남지구(6만927㎡), 동문2지구(2만9475㎡), 동문3지구(2만9474㎡) 등 3개 지구(11만9876㎡)를 1차 사업지구로 각각 확정하고 사업시행을 위한 정비계획안을 마련했다.

이들 3개 지구는 도로, 주차장, 공원 등 공공시설부문과 단독주택 용지로 정비되며 단독주택 정비는 국민주택기금 융자 등의 현지개량 방식을 취하게 된다.

시는 이 계획안에 대한 사업지구 고시 등의 사전 행정절차가 끝나면 올 하반기부터 사업추진에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건설교통부에 대상지 지정 신청을 낸 석남 · 석림지구(3만7200㎡)와 해미지구(4만3200㎡) 등 나머지 2개 지구도 확정 통보가 오면 곧바로 정비구역 지정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정관희 기자〉

예산군청 공익근무요원
저소득층 자율봉사활동

[예산]예산군청 소속 공익근무요원들이 사회 봉사 등을 위한 '자율봉사대' 를 만들어 운영키로 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현재 예산군청에서 복무하고 있는 공익근무요원은 39명으로 이들 가운데 일부가 지난해부터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청소년 공부방' 등을 운영해오던 것을 올 하반기부터는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키로 한 것이다.

공익근무요원 전원이 참여하는 자율봉사대를 발족하고 청소년 공부방과 함께 컴퓨터 기초교육, 사회복지시설 자원봉사, 자연보호활동 등을 펼치기로 했다.

〈윤여일 기자〉

행자부등 보령 신활력사업 현지방문

市, 머드 전문 브랜드 개발 보고

[보령]낙후된 농·어촌의 균형발전을 위해 행정자치부에서 추진중인 신활력사업의 1차 현지조사를 위해 행정자치부, 산업기술평가원 관계자와 심사위원이 21일 보령시를 방문했다.

이들은 시청 상황실에서 신준희 보령시장을 비롯 유관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보령시가 응모한 '머드로 블루오션을 항해하는 보령머드피아' 계획에 대한 프리젠테이션을 가졌다.

시가 제출한 '머드로 블루오션을 항해하는 보령머드피아' 는 머드를 활용한 농 · 수산물 제품 생산으로 주민소득창출을 꾀한다는 구상으로 머드 전문 브랜드 개발 등 연구사업 추진 방안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시는 지난주 '머드로 블루오션을 항해하는 머드피아' 라는 주제로 한국산업기술평가원에 신 활력사업 계획서를 제출했고, 행자부에서 이번 1차 현지조사와 2차 종합평가를 거쳐 대상지를 선정하게 된다.

〈민영이 기자〉